

말레이시아 2021: 무히딘 정부 몰락과 희망연합(PH)의 위기 심화

김형종* · 황인원**

국문초록

2021년 8월 무히딘(Muhyiddin Yassin) 정부의 몰락과 이스마일 사브리(Ismail Sabri Yaakob) 정부의 출범으로 말레이시아 정치 불확실성이 심화되었다. 말라카 주의회 선거에서의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이 압승하고 사라왁 주의회 선거에서 희망연합(PH, Pakatan Harapan)이 참패함으로써 2018년 이전 체제로의 복귀 가능성이 제기된다. 의회 쿠데타로 집권한 무히딘 총리의 ‘생존 게임’은 어떻게 실패로 귀결되었는가? 이 과정에서 국왕을 비롯한 여야의 중요한 정치 행위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의 출범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진 말라카, 사라왁 주의회 선거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팬데믹 상황하에서 경제회복과 외교정책 변화를 시도하는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의 비전과 한계는 무엇인가? 이 논문에서는 무히딘 정부의 몰락과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의 출범 과정, 말라카와 사라왁 선거의 결과와 함의 분석을 통하여 2022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총선의 과제와 향방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치적 불안정이 팬데믹의 심화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악화시킨 주요 요인이며 정통성의 위기는 외교 정책에 있어 중립성 유지에 중대한 과제로 대두되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 주저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제관계학과 부교수, kimsea@yonsei.ac.kr.
** 교신저자, 경성국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hwang@gnu.ac.kr.

주제어: 이스마일 사브리, 국민전선, 희망연합, 국민동맹, 팬데믹, 말라카 주의
회 선거, 사라왁 주의회 선거, 코로나 팬데믹

I. 서론

2021년 말레이시아 정가의 가장 두드러진 사건은 무히딘 (Muhyiddin Yassin) 정부의 몰락과 이스마일 사브리(Ismail Sabri Yaakob) 정부의 출범이었다. 2020년 2월 의회 쿠데타로 집권한 무히딘 정부는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 United Malays National Organization) 중심의 61년 패권적 지배체제’를 해체하려는 희망연합 (PH, Pakatan Harapan)의 정치적 실험을 위기에 봉착시켰다. 정통성의 부재리는 무히딘 정부의 태생적 한계는 집권 이후 말레이시아 정가를 무질서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였다. 역설적이지만, 어느 특정 세력도 패권적 위치를 접하지 못하는 상황이 향후 말레이시아 정치과정을 보다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경로로 변모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예측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2021년 8월 나집(Najib Razak) 전 총리와 자히드(Zahid Hamidi) 총재로 대변되는 UMNO 기득권 세력이 주도하여 무히딘 정부를 몰락시키며 말레이시아 정치지형이 ‘2018년 5월 총선 이전의’ 구체제로 다시 복귀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 출범 이후, 차기 총선의 가늠자로 여겨지는 말라카 주의회 선거에서 UMNO가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한함을 과시하며 국민전선(BN, Barisan Nasional)이 압승하고, 연이은 사라왁 주의회 선거도 PH가 참패함으로써 이러한 우려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정국 불안정은 코로나에 대한 대응과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쳤다. 코로나 일일 감염자 수가 한때 2만 4천여 명에 이르며 의료 기관의 수용 능력도 한계에 달했다. 정치적 목적에 치중한 비상사태 선포와 일관되지 않은 이동통제 정책은 부실 대응 논란을 낳았다. 2021년 경제 성장률은 당초 예상보다 낮은 3~4%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빈부 격차 해소, 디지털 경제 전환 등 주요 과제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중 갈등 심화 속에 남중국해 갈등, 미얀마 사태, 팬데믹 등 주요 외교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는 경제 및 외교 분야의 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며 정통성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으나, 정치적 불안정과 불확실성은 근본적인 경제 및 외교정책의 개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의회 쿠데타로 집권한 무히딘 총리의 ‘생존 게임’은 어떻게 실제로 귀결되었는가? 이 과정에서 국왕을 비롯한 여야의 중요한 정치 행위자들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의 출범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는 무엇인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치러진 말라카, 사라왁 주의회 선거 결과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팬데믹 상황에서 경제회복과 외교정책 변화를 시도하는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의 비전과 한계는 무엇인가? 이 논문에서는 무히딘 정부의 몰락과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의 출범 과정, 말라카와 사라왁 선거의 결과와 함의 분석을 통하여 2022년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기 총선의 과제와 향방을 가늠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정치적 불안정이 팬데믹의 심화 및 사회경제적 여건을 악화시킨 주요 요인이며 정통성의 위기는 외교정책에 있어 중립성 유지에도 큰 도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II.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여권 분열

2021년 1월 12일, 국왕은 코로나 팬데믹을 이유로 무히딘 총리가 요청한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하였고, 연방의회와 13개 주의회의 개원은 물론 연방 및 주의회 선거가 국가비상사태가 종료되는 8월 1일까지 전면 중지되었다. 2021년에 접어들면서 일부 UMNO의원들의 무히딘 정부에 대한 지지 철회가 이어지고, 여권 발 조기 총선 실시에 대한 압박이 점차 강화되던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전격 선포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에서도 이동통제령(MCO: Movement Control Order)이 이미 전국에 발동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배경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정통성의 부재로 출발한 무히딘의 입장에서 조기 총선의 실시는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최선의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집권연립내 정치적 기반이 허약한 무히딘과 말레이시아쁘리부미연합당(Bersatu, Parti Pribumi Bersatu Malaysia)의 입장에서 조기 총선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었다. 총선이 실시되면 UMNO와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 Parti Islam Se-Malaysia)이 가장 큰 정치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예견되었기 때문이다. UMNO와 PAS보다 정치적 기반이 열악한 Bersatu가 조기 총선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무히딘 정부가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했다. 이런 맥락에서 무히딘 총리가 조기 총선 압박에서 벗어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관리하며 시간을 버는 차원에서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이다.

국가비상사태의 선포로 무히딘 총리가 어느 정도 숨을 돌릴 수는 있었으나, UMNO의 공세가 약화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조기 총선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여권의 갈등은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의회 쿠데타 이후 UMNO의 공식적인 입장은 국민동맹(PN,

Perikatan Nasional)에 합류하지는 않고, 차기 총선 전까지 무히딘 정부를 지지하는 것이었다.¹⁾ 그러나 비상사태 선포로 조기 총선이 어려워지면서, 나집과 자히드가 주도하는 UMNO 기득권 세력들의 공세가 무히딘 총리에 대한 지지 철회로 그 공세 방향을 전환하게 된 것이다.

비상사태 선포 직전, UMNO 하원의원 한 명이 무히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함으로써 PN 정부는 220명의 하원의원 중 110명의 지지를 받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비상사태 선포 직후 또 한 명의 UMNO 하원의원의 지지 철회를 필두로 2021년 초반까지 UMNO 의원들의 지지 철회가 이어짐으로써, 무히딘이 하원 과반수를 밀도는 지지를 받는 불안정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²⁾ 이 시기에 UMNO의 거의 모든 지구당이 차기 총선에서 Bersatu와의 선거동맹을 거부할 것을 선언하였고, 3월 27일 개최된 UMNO 연차 총회에서 차기 총선에서 PN과 선거연합은 없을 것임을 결의하였다(Norshahril Saat 2021/03/31). 더 나아가서 당 차원에서 무히딘 총리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시기를 당 지도부에 일임함으로써 UMNO의 압박이 더욱 강화되었다(Malaysiakini 2021/03/29). 특히 6월 말에 열린 UMNO 최고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선거를 2022년 12월 이후로 연기하면서 反무히딘 진영을 주도하던 자히드가 당 총재직을 유지하게 된 것도 무히딘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Malaysiakini 2021/06/29)³⁾

1) PAS는 UMNO와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PN에 공식 합류하였다. 이로써 의회 쿠데타 이후 여권에는 무히딘의 Bersatu가 주도하는 PN, UMNO가 주도하는 BN, UMNO와 PAS의 말레이 동맹인 국민합의(Muafakat Nasional)라는 세 개의 정당연합이 공존하고 있는 형국이다.

2) 2021년 3월 UMNO 전당대회를 앞두고 Tengku Razaleigh Hamzah, Ahmad Jazlan Yaakob, Nazri Aziz 역시 무히딘에 대한 지지 철회를 공식화하였다.

3) 선거 연기 과정에서 내부의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수가 넘는 UMNO 하원 의원들은 당 지도부의 핵심 인물들이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 지도부의 유지보다는 예정대로 선거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Malaysiakini 2021/06/28).

무히딘 총리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UMNO는 크게 두 진영으로 분열되어 있었다. 하나는 무히딘 정부에 참여하는 UMNO 각료들을 중심으로, 다른 하나는 내각에 참가하지 않은 의원들이 중심인 진영이다. 전자가 무히딘 총리와의 공조가 제공하는 정치적 이득을 강조하는 반면, 후자의 일관된 입장은 여권의 최대 지주인 UMNO가 “무히딘 정부의 보조역할”을 담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⁴⁾ UMNO의 분열적인 진영 구도는 무히딘의 정권 유지를 위한 ‘생존 게임’에서 ‘양날의 검’과 같은 상황을 제공하였다. 무히딘 총리는 UMNO 내부의 분열과 갈등 구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으나, 여권 세력의 통합된 지지가 절실한 무히딘의 입장에서 UMNO의 분열은 정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무히딘은 정권 유지를 위한 UMNO와의 ‘생존 게임’에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양동 전략을 구사하였다. UMNO 최고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선거 연기를 결정한 직후, 무히딘은 자신에게 우호적인 이스마일 사브리 UMNO 부총재를 부총리에 전격 임명하였다. UMNO의 친무히딘 진영을 이끌며 자히드 총재와 대립하는 히샤무딘 후세인(Hishammudin Hussein) 외교부 장관을 이스마일 사브리 후임으로 선임장관으로 승진 임명한 것도 유사한 맥락이었다. 이러한 조치는 집권 내내 공식으로 남겨놓았던 부총리직을 UMNO에 배분함으로써 차기 총리직을 UMNO에 이양할 것임을 시사함으로써 UMNO와의 갈등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림수로 여겨졌다. 특히 자신에게 우호적인 진영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나집과 자히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한 UMNO의 세력 판도를 변화시켜 보려는 무히딘의 의도도 담겨 있었다.

4) UMNO의 진영 분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Norshahril Saat(12/05/2021)을 참조할 것.

그러나 부총리 임명 직후부터 무히딘은 거센 역풍에 직면하게 되었다. 자히드 UMNO 총재가 4시간에 걸친 최고위원회 회의를 주도한 후에 UMNO는 “당 차원에서 무히딘 총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공식 선언하며, “임시 지도자(interim leader)”에게 총리직을 이양하고 무히딘이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Hutchinson 2021/07/09). UMNO 최고위원회의 결정에 38명의 하원의원이 모두 동의한 것은 아니었으나, 8월 초에 이르기까지 최소 11명의 UMNO 하원의원이 무히딘 총리 지지 철회를 공식화하였다. 결국 부총리 임명이 UMNO의 반무히딘 진영에게 무히딘 총리에 대한 ‘집단적 지지 철회’를 주도하게 만든 도화선으로 작용한 것이다. 자히드 진영을 견제함으로써 위기의 타개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시간을 벌려는 무히딘의 노림수는 임시 총리직을 수행할 수 있는 부총리직이 채워짐으로써 오히려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을 더욱 강화하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Ⅲ. 무히딘 정부의 몰락

8월 1일로 예정된 비상사태 종료를 앞두고 무히딘 총리는 사면초가에 직면하게 되었다. UMNO의 공세가 점차 가중되는 와중에 의회 개원 문제를 두고 국왕과의 갈등이 격화된 것이다. 비상사태 선포로 상·하원 모두 개원이 무기한 정지되었으나,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와 의회 정지가 반드시 양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비상사태 선포 이후 한 달 남짓 지난 시점에서, 국왕 역시 비상사태가 의회 개원을 막는 정치적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였다. 2021년 중반에 이르러 상·하원의원들의 백신 접종이 완료된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과 시민사회 역시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의회 차원

의 논의와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강화해가고 있었다.

이런 맥락에서, 국왕은 6월에 접어들면서 여야 정치인들을 포함한 총 18명의 국가 지도급 인사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회 개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일련의 면담을 통하여 국왕은 정치권에서 사안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면담 과정에서 더욱 강력한 통제체제로의 전환, 비상사태 해제와 의회 개원, 의회 해산 후 총선 실시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전달되었다. 이 중에서 조속한 의회 개원과 비상사태 해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무히딘은 국왕의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국가회복계획(National Recovery Plan)’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4단계에 걸쳐 경제 및 사회 활동의 완화 조치를 하겠다는 것으로, 3단계에 접어드는 9월이나 10월에 의회를 개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국왕은 국가회복계획이 발표된 지 하루 만에 ‘특별군주회의(a special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Rulers)’를 소집하여 무히딘 총리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왕실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의 내용은 ‘국가비상사태를 연장하거나 의회를 계속 정지하려는 어떠한 야망도 견제할 것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를 개원하여 총리의 국가회복계획 등에 대하여 토의할 것을 촉구’하는 것 있었다.⁵⁾ 이론적으로 총리가 국왕과 군주 회의의 결정에 반드시 책임질 필요는 없으나, 정국의 주도권을 이미 상실한 무히딘의 입장에서는 국왕의 요구는 간과할 수 없는 압박이었다. 하지만 무히딘으로써는 국왕의 요구를 쉽게 수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의회 개원 시, UMNO의 反무히딘 진영과 PH가 공조하여 자신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현실화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무히딘은 ‘원-포인트 의회 개원’과 ‘비상사태의 전

5) 무히딘과 국왕의 갈등 전개에 자세한 내용은 Hutchinson(2021/06/18)을 참조할 것.

격적인 해제'로 돌파구를 마련하려 하였다. 7월 5일, 무히딘이 하원을 7월 26일부터 5일 동안 개원하여 국가재건계획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7월 21일, 내각에서 국가비상사태 종료를 결정했다는 발표도 이어졌다. 그러나 전자는 UMNO의 反무히딘 진영과 야권의 반발을, 그리고 후자는 국왕과의 갈등을 증폭시켰다. 정치권의 반발은 원-포인트 의회 개원이 다양한 현안에 관한 토론보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에 불과하다는 것이었고, 국왕의 입장은 국가비상사태 해제는 내각의 권한이 아니라 의회의 토론을 통해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국왕은 7월 2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하여 내각의 결정을 승인할 수 없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무히딘 총리를 더욱 압박하였다(Malaysiakini 2021/07/29).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무히딘은 8월 4일 국왕과의 면담을 통하여 의회를 9월 6일에 다시 개원하여 자신에 대한 신임투표를 받아들이겠다는 절충안을 전달하게 된다.⁶⁾ 무히딘의 국왕 면담은 원-포인트 하원이 폐회하고 하루 만인 8월 3일, 11명의 UMNO 의원이 무히딘에 대한 지지 철회를 공식 발표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다.

총리 신임투표를 위한 의회 개원을 한 달 정도 남겨두고 무히딘의 '생존 게임'은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게 된다. 무히딘의 최후 행보는 'UMNO에 대한 압박'과 과거 자신이 몸담았던 'PH를 향한 구애'로 동시에 진행되었다.

'UMNO에 대한 압박'은 내무부 산하의 사회단체 등기부(ROS, Registrar of Societies)가 '당 지도부 선거를 18개월 연기하기로 한 UMNO 최고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라고 공표하면서 가시화되었다. 그 근거는 선거 연기 결정이 최고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결정되었다는 것이다(Malaysiakini 2021/08/06). ROS의 결정은 UMNO의 反무히딘 진영은 물론 당 전체에 위협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6) 무히딘의 국왕 면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alaysiakini(2021/08/04)를 참조할 것.

조치였다. 1987년 UMNO 선거 과정에서 일부 지구당의 절차적 문제를 근거로 ROS가 UMNO의 해산 조치를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결정이 향후 UMNO의 불법화까지 염두에 둔 무히딘의 행보라는 우려와 의혹이 당내에서 증폭되었다(Malaysiakini 2021/08/07). ROS 결정 직후, 무히딘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국왕에게 전달되었던 13명 하원의원의 서명이 담긴 서신이 UMNO 홈페이지에 전격 공개된 것도 이런 우려와 공분을 반영한 것이었다(Malaysiakini 2021/08/09).⁷⁾ 결국 8월 9일을 기점으로 총 220명 하원의원 중에서 무히딘을 지지하는 숫자는 불과 100명으로 줄어들게 되었다.

‘PH를 향한 무히딘의 구애’는 신임투표에서 PH가 자신을 지지해주는 조건으로 일련의 정치개혁 조치를 실행하겠다고 제안하는 것으로 가시화되었다. 무히딘은 총선을 2022년 7월 이전에 치르겠다고 발표하면서, 나집과 자히드로 대변되는 UMNO 기득권 세력을 겨냥하여 자신의 책무는 “약탈형 정치인들(kleptocrats)”의 복귀를 저지하는 것이라며 일련의 정치개혁 조치를 약속하였다(Malaysiakini 2021/08/13). 정치개혁 조치들에는 예산안에 대한 초당적 협의, 18세 이상 투표권 보장, 당적 변경 방지법 제정, 총리 중임 제한, 모든 의원에게 예산 연간 할당, 의회 상임위원장 여야 동수 배분, 야당 지도자의 선임장관 대우 등이 포함되었다. 이의 실현을 위해 9월 신임투표에서 PH의 지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PH 지도부는 무히딘의 제안을 거부하며 즉각적인 총리직 사임을 촉구하였다.

자신의 마지막 생존 전략이 무산됨에 따라 무히딘은 결국 8월 16일자로 국왕에게 총리직 사임 의사를 전달하게 된다. 국왕은 이를 즉시 승인하는 동시에 무히딘을 최소한의 행정업무만을 관장하는 ‘임시 총리(caretaker prime minister)’로 지명하였다. 그리고 임시 총

7) 야권 역시, UMNO의 서신이 공개된 직후, 자신들도 같은 서신을 국왕에게 전달했다고 발표하면서 무히딘을 더욱 몰아세웠다.

리직 지명 나흘 만에 UMNO 부총재인 이스마일 사브리 부총리가 신임 총리에 지명되었다. 2018년 5월 총선 이후 2년 3개월 만에 UMNO가 다시 집권연합의 중심으로 복귀하게 된 것이다. 한편, 무히딘은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들이 내각에서 배제되는” 조건으로 이스마일 사브리를 자신의 후임으로 지지하였다(Malaysiakini 2021/08/19). 이는 자신의 사퇴를 주도한 나집과 자히드를 직접 겨냥하여 견제하는 동시에, 이스마일 사브리의 집권 유지를 위한 ‘킹메이커’ 역할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었다.

IV.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의 출범과 희망연합의 위기 심화

8월 20일, 빠항(Pahang) 출신의 이스마일 사브리가 제9대 총리에 취임했다. 국왕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안와르(Anwar Ibrahim)는 105명, 이스마일 사브리는 114명의 하원의원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마일 사브리는 UMNO 당내 서열이 3위였음에도 불구하고 부총리로 지명되었으며, 불과 45일 만에 총리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스마일 사브리가 급부상하게 된 배경에는 UMNO 내부의 역학 관계와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반영되었다. 그는 나집과 자히드로 대변되는 UMNO 기득권 세력도, 내각의 일원이었으나 무히딘의 부총리 후보군에서도 최우선은 아니었다. 야권 역시 UMNO에서 주요 파벌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 이스마일 사브리가 총선을 대비하는 정국에서 ‘무난한 관리자’ 정도로 받아들였다.

이러한 정치적 역학 구도가 반영되어 신정부의 내각 구성은 무히딘 정부와 거의 차이가 없었다. 유일한 차이는 기존의 Bersatu 11명, UMNO 9명의 장관에서 UMNO 11명, Bersatu 9명으로 장관 숫자가 바뀐 것이다. 차관 숫자도 Bersatu가 15명에서 14명으로 줄고,

UMNO는 8명에서 10명으로 소폭 증가하였다. 안정적인 집권을 위해서 Bersatu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스마일 사브리는 “Bersatu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가져오지 않는” 신중한 행보를 취한 것이다(Malaysiakini 2021/08/27). UMNO와 Bersatu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고려하여 이스마일 사브리 역시 무히딘과 마찬가지로 부총리직은 공식으로 남기고 4명의 선임장관 체제를 유지하였다. 비록 총리직은 UMNO에 승계되었으나, 기존의 PN 집권체제는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로써 정국은 총리만 교체되고 Bersatu와 PAS가 주도하는 PN, UMNO가 주도하는 親여권 진영의 BN, 야권연합 PH 등 세 개의 정당연합이 경쟁하는 구도로 정착되었다.

신정부 출범과 동시에 여야 정치권은 총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 안와르 역시 ‘숫자 게임’을 접고 총선 준비에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Malaysiakini 2021/08/21). PH가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와 전례가 없던 “변화와 정치안정을 위한 양해 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Transformation and Political Stability)”를 체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양해 각서의 주요 내용은 ‘PN 정부는 무히딘이 제시했던 정치개혁 제안과 유사한 조치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실행하고, PH는 총리가 의회 과반수 지지를 유지하는 한 불신임을 추진하지 않고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도 긍정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이스마일 사브리는 2022년 7월 31일 이전에 의회를 해산할 것도 약속하였다.⁸⁾ 양해 각서의 체결은 PN 정부는 물론 PH의 입장에서조차 총선 민심을 얻는데 정치적 무질서와 혼란의 지속이 서로에게 유리하지 않다는데 최소한의 공감대가 도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PN, BN 그리고 PH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기회가 의외로 빨리 찾아왔다. 10월에 접어들면서, PH가 말라카에서

8) 양해 각서의 자세한 내용과 함의는 Khalid Samad(2021)와 Tong(2021)을 참조할 것.

UMNO, Bersatu 그리고 여당 성향 무소속 등 4명의 주의원과 연합하여 BN 주정부를 장악하려는 “말라카 움직임(Malacca Move)”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Kow 2021). PH 지도부가 ‘당적 변경에 의한 주정부 교체’ 배후설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주(州) 수상 지지 철회가 현실화되었다. 그러나, 2020년 ‘쉐라톤 움직임’에 의해 연방정부는 물론 말라카 주정부도 교체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주(州) 수상의 의회 해산 건의를 말라카 총독이 수용하면서 주 의회 선거가 갑자기 치러지게 된 것이다.

11월 20일로 예정된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UMNO가 Bersatu는 물론 PAS와의 공조도 거부하면서 말라카 주의회 선거는 ‘PN, BN, PH 간의 3자 대결’로 치러지게 되었다. 2018년 총선이 BN과 PAS가 공조하여 PH와 양자 대결을 벌였던 것과 달리, 이번 선거는 PN 출범 이후 주요 정당들의 이합집산으로 새로운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었다. 더욱이 이번 대결 구도가 차기 총선에서도 재현될 개연성이 높다는 점에서 말라카 주의회 선거는 ‘미리 보는 총선’이라는 의미도 지니고 있었다. 특히 말라카는 종족 분포나 유권자들의 소득 수준 등 여러 측면에서 반도 말레이시아의 다른 주들과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기에 차기 총선 결과를 예측하는 가능자로 인식되었다.

선거 결과는 “BN 승리, PH 패배, PN 선전”으로 요약되었다(Hutchinson & Zhang 2021/11/26). BN은 이번 선거에서 28석 중 21석을 차지하며 2018년 총선의 13석을 훨씬 초과 달성하는 성적을 거뒀다. 21석 중에서 UMNO가 18석, 말레이시아화인협회(MCA, Malaysian Chinese Association)가 2석, 말레이시아인도인회의(MIC, Malaysian Indian Congress)가 1석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N이 2008년 총선에서 23석, 2013년 총선에서 21석을 획득했던 점을 고려할 때, BN의 정치적 영향력이 2018년 총선 이전으로 완전히 돌

아갔음을 의미한다. UMNO의 위상은 2020년 사바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압승함으로써 완전한 회복세로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나집 전 총리와 자히드 UMNO 총재는 연이은 선거 승리를 주도하면서 부패 혐의의 부담을 줄이며 차기 총선에서 정권을 재탈환하는 기반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Malaysiakini 2021/11/21).

PH의 경우, 당선자가 5명으로 줄었는데 이는 2018년의 1/3에 그치는 수준이었다. 민주행동당(DAP, Democratic Action Party)은 8명이 경선하여 4명이 당선되었고, 국가신뢰당(Amanah, Parti Amanah Negara)는 9명 중에서 1명이 승리하였다. 그러나 인민공정당(PKR, Parti Keadilan Rakyat)은 가장 많은 11명의 후보를 내세워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배출하지 못했다. PH의 5석은 2013년 총선에서 전신인 민중연합(PR, Pakatan Rakyat)이 얻었던 7석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DAP의 4석 역시 2013년(6석)과 2008년(5석)을 밑도는 성적이었다고, PKR은 한 명도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했던 2013년 총선 당시 수준으로 전락했다. PH는 패배한 23개 지역에서 절반이 넘는 12곳에서 BN과 PN에 밀려 3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패배한 23곳 중에서 PH 후보자의 득표수가 1위 후보의 절반 이하였던 지역도 절반이 넘었다. 이런 맥락에서 PH는 ‘미리 보는 총선’에서 BN뿐만 아니라 신생 정당연합인 PN과의 경쟁에서도 패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Welsh 2021).

PN은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2곳에서 승리했다. 2명의 당선자 모두 Bersatu에서 나왔고, PAS는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존의 BN과 PH 양자 대결 구도에 PN이 처음 참여한 선거였음을 고려할 때, 이번 선거에서 PN이 얻은 24.3%의 득표율은 결코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없다. 특히 2016년에 창당한 비교적 신생정당인 Bersatu가 2018년 총선과 같이 2석에서 승리하고

15% 정도의 득표율을 유지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선거의 최대 승자는 ‘홀로서기에 성공한’ 무히딘의 Bersatu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Welsh 2021). PAS 역시 당선자는 배출하지 못했으나, 말라카가 PAS의 강세 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쟁한 8곳 모두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보였다. 특히 PAS가 다종족 구성이며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된 Kelebang과 Bukit Katil 선거구에서 선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PN 내부적으로는 실망스러울 수 있으나, Bersatu나 PAS 모두 선거 전 예상보다 훨씬 선전하였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다(Raveena Nagotra 2021).

한편, 말라카 선거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경쟁과 평가의 기회가 찾아왔다. 사라왁 주의회 선거가 12월 18일에 실시된 것이다. 원래 사라왁 선거는 국가비상사태의 선포로 2022년 2월까지 연기되었었다. 국가비상사태는 2021년 8월 1일 자로 종료되었지만, 사라왁의 비상사태는 2022년 2월 2일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국왕의 승인으로 사라왁의 비상사태가 11월 3일에 종료됨으로써 예정보다 일찍 주의회 선거가 치러지게 된 것이다.

사라왁 주의회는 총 82석으로 13개 주 중에서 최대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 사라왁은 5개의 주요 종족과 다양한 소수 종족이 혼합된 주로서 반도 말레이시아와는 큰 차이를 지니고 있다. 2016년에 치러진 주의회 선거에서는 사라왁 BN이 72석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2018년 총선 패배 이후, 사라왁 BN 소속의 4개 정당이 사라왁정당연합(GPS, Gabungan Parti Sarawak)을 결성하면서 BN에서 공식 탈퇴하였다. 통일부미뿌트라상속당(PBB, Parti Pesaka Bumiputera Bersatu)이 주도하는 GPS는, 2020년 의회 쿠데타 이후, 연방 차원에서 PN 정부와 비공식적인 동맹을 맺으며 親여권 정당연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PH는 DAP와 PKR이 직접 주 정치에 참여하고 있는데 2016년 주의회 선거에서는 10석을 차지하였다.

이번 선거 결과는 GPS가 “압도적 다수(supermajority)”로 승리한 것으로 귀결되었다. 말라카 선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PH의 참담한 패배”가 재현되었다. GPS는 82석 중에서 76석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2016년 BN이 얻은 72석보다 4석이 늘어난 승리였다. GPS가 사라왁 BN을 사실상 대체함으로써, 이번 선거에서 BN은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한편, PH의 의석은 10석에서 단 2석으로 급감했는데, DAP는 7석에서 2석으로, PKR은 3석 모두 잃어버렸다. PH가 62곳에 후보자를 낸 것을 고려하면 참담한 성적이었다. 반면, BN 소속이었던 사라왁통합인민당(SUPP, Sarawak United People’s Party)에서 2016년 분리한 통합사라왁당(PSB, Parti Sarawak Bersatu)은 4석을 차지하면서 야권의 최대 정당으로 부상하였다.⁹⁾

PH의 입장에서 사라왁의 패배는 말라카와 같은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 선거 전부터 PH가 승리 또는 선전할 것이라는 기대도 적었고, 사라왁이나 사바의 정당들이 반도 말레이시아에서 우위를 점한 정당들과 집권연합의 공조를 취해 왔던 기존의 정치행태를 고려하여 이번 선거 패배의 위안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말라카와 사라왁의 투표율이 지난 선거에 비해 현저히 낮아졌다는 것도 PH에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2020년 사바에 이어 2021년 말라카와 사라왁에서도 UMNO와 BN의 정치적 영향력이 빠르게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PN이 제3의 대안세력으로 분명한 자리매김을 해가는 상황에서, PH가 당면한 위기가 단순히 일시적이거나 단순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야권으로 전락한 이후 치러진 일련의 주의회 선거 과정에서 PKR과 DAP의 갈등과 PH 지도부의 불협화음이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간략한 설명 필요] 차기 총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정치행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PH의 위기는 계

9) 자세한 선거 결과는 Ong(2021)을 참조할 것.

속 심화할 수밖에 없다.

V. 팬데믹 확산과 사회·경제적 여건 악화

2021년 지속된 정치 불안정과 코로나 악화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악화시켰다. 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는 팬데믹 상황이 악화하면서 무히딘의 정권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을 불러왔다. 보건 당국의 능장 대응과 델타 변이 확산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했다. 5월 말 일일 확진자 9천 명, 일일 사망자가 100명에 육박했다. 중환자실 병상 부족 등 의료 기관의 수용 능력도 한계를 넘어섰다. 정부는 6월 1일부터 전면적인 이동통제를 다시 시행했다. 전면적 이동통제로 확산세가 잠시 둔화되자 정부는 경제 위축을 우려하여 제조업 18개 분야의 생산 활동을 60% 가동률 수준에서 허용하였다. 그러나 선부른 정부의 규제 완화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의 급격한 증가를 불러왔다. 무히딘의 개각에 이은 총리 사임으로 야기된 정치적 혼란 속에 8월에는 일일 감염자가 2만 4천 명, 일일 사망자가 400명을 넘는 최악의 상황이 전개됐다. 9월 들어 백신 1차 접종률과 접종 완료율이 각각 70%와 60%에 달하면서 팬데믹 확산세가 점차 둔화되었지만, 12월 말 일일 발생자가 3천 5백 명 대를 기록하며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0년 GDP 성장률은 팬데믹 여파로 -5.6%에 그쳤는데 2021년은 팬데믹 통제와 더불어 경제성장에 대한 희망적인 전망이 제기되었었다. 1/4분기와 2/4분기 GDP 성장률이 각각 -3.4%와 16.1%를 기록하며 경제회복이 기대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악화되며 3/4분기 GDP 성장률은 애초 1.3% 성장 전망에 크게 못 미치는 -4.5%를 기록했다. 2021년 1~9월 경제성장률은 11.1%로 중앙은행은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3~4%로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최악의 팬데믹 상황은 넘겼다는 판단 속에 경제 지원책의 효과로 4/4분기 성장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 국제신용등급평가업체 무디스(Moody's)는 말레이시아 경제 성장률을 2021년 3.5%, 2022년 5%로 각각 전망했다(The Edge Market 2021/11/01).

<표 1> 말레이시아 GDP성장률 추이 (단위: %)

년도	2020년				2021년		
	1/4	2/4	3/4	4/4	1/4	2/4	3/4
전년대비 분기별 GDP성장	0.7	-17.2	-2.7	-3.4	-0.5	16.1	-4.5
전분기 대비 GDP성장		-16.1	17.3	-1.5	2.7	-1.9	-3.6

출처: Department of Statistics Malaysia 2021.

팬데믹 상황에서도 수출과 투자는 회복세를 보였다. 1~9월 투자 승인액은 RM1,778억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이 58%, 서비스업이 32.5%를 각각 기록했다. 총 투자 승인액 대비 분야별 비중은 제조업이 58.4%, 서비스업이 32.5%를 각각 기록했다. 외국인투자(FDI)는 RM1,061억으로 총 투자 승인액의 60%에 달한다. 이는 2020년 동기간 유입액 RM995억을 초과하며 팬데믹 이전인 2019년 FDI 유입액 RM1,138억을 거의 회복한 수준이다(MITI 2021). FDI 중 제조업 분야 투자는 전년 대비 60% 증가한 RM917억을 기록했다. 오스트리아의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인 AT&S가 RM85억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 사례이다(The Star 2021/6/11). 1~11월 무역액은 RM2조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간 대비

24.6% 증가했다. 동기간 수출액은 RM1조 1천억으로 전년 대비 25.7% 증가했으며 수입은 23.3% 증가한 RM8,944억을 기록했다. 수출 증가는 전자전기, 석유화학, 팜유 등의 수출 호조에 따른 것이다(MITI 2021).

2022년 발효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으로 아세아 회원국 중 말레이시아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USD2천억 규모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호주, 중국, 한국, 뉴질랜드 등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에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USD15억과 3천억 규모의 수출 감소 효과를 전망했다(UNCTAD 2021: 13).

한편,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악화에 대한 정부 부실 대응으로 사회·경제적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2021년 물가 인상 폭은 2.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 불안정과 정책 불확실성이 말레이시아 자본시장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New Straits Times 2021/8/4). 링깃의 약세로 원자재 및 중간재 가격이 상승하며 인플레이션 상승을 견인하는 형국이다. 9월 기준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지수는 3.3% 상승했으며 이러한 상승세는 2022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악천후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비료 가격 인상과 노동력 부족 등으로 물가인상 압력이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원자재 생산 및 가공업과 부동산 개발 업체의 수익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물가상승으로 인한 하위소득 그룹의 구매력 약화는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자율 상승 압력은 또 다른 물가상승 요인이 될 전망이다. 경제기관들은 중앙은행 기준 이자율이 현재 1.75%에서 내년 3/4분기 중에 0.25%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The Star 2021/12/27).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연료 및 식용유 관련 보조금으로 RM80억을 지출했는데 이는 2019년과 2020년의 관련 보조금의 합계에 해당하는 큰 규모이다.

팬데믹 확산으로 경제활동 위축이 불가피했으며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는 2022년 예산안과 제12차 5개년 경제계획(12th Malaysia Plan, 12MP)을 발표하며 경제회복과 성장을 모색했다. 코로나 사태 대응에 따른 정부 지출 증가는 예산 증가로 이어졌다. 정부는 코로나 관련 대응에 약 RM5,300억을 지출했으며 2022년 예산은 RM3,321억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 RM2,335억은 운영비용이며 개발예산 RM756억과 코로나 관련 예산으로 RM230억을 각각 배정했다. 2022년 예산안은 코로나 대응, 경제회복 촉진과 개혁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재정적자 감소를 추구함에 따라 세수 증가가 세출보다 많게 계획되었다. 2021년 11월까지 세수는 RM2,104억으로 전년 대비 8.9% 증가했는데 세출은 4.9% 증가한 RM3,076억을 기록했다. 2021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6.5%에 달할 전망이다. 2022년 예산안은 재정적자 규모를 GDP대비 6%로 설정하고 2025년까지 이를 GDP 대비 3.5%까지 축소할 계획이다(The Edge Market 2021/12/13). 현재 세수액은 GDP 대비 15.9% 수준인데 이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2022~2024년에는 GDP 대비 13.9%로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 보호 강화를 위해 부가가치세(GST) 재도입 검토 등 추가적인 세수 확보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재정적자 확대에 의해 정부 부채도 증가했다. 10월 의회는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을 65%까지 늘릴 수 있도록 승인했다. 팬데믹 상황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2020년 10월에 적정 정부 부채 규모를 GDP 대비 55%에서 60%로 조정한 바 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정부 부채는 RM8,795억으로 GDP 대비 62.1%로 추산된다(New Straits

Times 2021/10/28).

2022년 예산안은 재정확보를 위해 한시적 법인세율 변경을 허용했다. RM1억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법인에 대해 현 세율 24% 대신 33%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팬데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상장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약속했다. 경영난을 겪는 항공, 건설, 에너지 등 관련 분야 상장사가 우선 지원 대상이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지원에는 RM142억이 배정했으나 팬데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난에 비하면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직접적으로 팬데믹의 영향에 노출된 하위소득 40% 계층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The Edge Market 2021/11/02).

정권의 정통성 취약과 팬데믹으로 심화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당면 과제로 대두되면서 정부는 향후 5년간 경제 기조를 담은 12MP를 통해 주요 사회경제 정책의 개혁을 제시하고자 했다. 말레이시아 소득 불평등은 심화되고 있다. 2016~2019년 지니계수는 0.399에서 0.407로 증가했다. 소득 하위 20%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9%에 그쳤지만 상위 10%는 30.7%를 점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율도 2016년 15.6%에서 2019년 17%로 증가했으며 팬데믹 이후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2MP가 디지털 경제와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강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부미뿌트라 자본을 위한 2트랙 증시 설립을 포함하는 등 여전히 종족 중심의 정치경제적 구조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형국이다. 최근 정치 변동 과정에서 말레이계의 이익이 핵심 쟁점으로 대두되었는데 말레이시아 사회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12MP는 부미뿌트라를 위한 신경재정책(NEP)과 결별하고 빈곤층의 소득 증대와 사회안전망 확보가 필요하다(Hunter 2021).

팬데믹으로 인해 노후를 위한 연금 등 사회안전망이 약화되고 있다. 정부는 팬데믹과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은퇴 이전 노동자의

연금(EPF, Employees Provident Fund) 조기 인출을 허용했다. 이로 인해 인출이 급증하였고 1인당 평균 연금 잔액은 RM10,000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향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4~6년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 추세대로라면 EPF 가입자 73%는 은퇴 시 빈곤층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 55세 이하 가입자 중 상위 20%만 적립금이 증가했다. 상위 20%조차 은퇴 후 20년간 받게 되는 월평균 연금이 RM633에 불과하여 사실상 EPF의 노후 대비 연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The Edge Market 2021/10/31). 통계상 실업률은 11월 기준 4.3%로 안정적 수준이지만 실제 고용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 플랫폼 노동자 증가, 일시적 휴직자 증가로 하위 소득 계층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The Malaysian Reserve 2022/1/11).

VI. 중미 갈등 속 외교 활성화 모색

최근 2년간 정치 불안정은 외교 활동을 위축시켰으며 현 이스마일 사브리 정권은 여전히 총선으로 검증받지 않은 불안정한 상황이다. 호주의 로위연구소(Lowy Institute)가 집계한 26개 아시아 국가를 대상으로 한 2021년 파워(power)지수에서 말레이시아는 1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와 비교할 때 한 단계 하락한 것으로 종합 파워는 18.3 포인트로 전년 대비 11% 하락했다. 문화를 포함한 외교 영향력도 8.9 포인트 하락했다(Lowy Institute 2021).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는 ‘포스트 팬데믹 말레이시아 외교정책 프레임워크’(Framework For Malaysia’s Foreign Policy in a Post-Pandemic World)를 발표했다. 다종족 사회인 말레이시아는 전통적으로 국내 정치와 외교가 밀접하게 연관을 맺어 왔으며 국제적 위상

제고는 정통성을 보완하여 정권의 안정에 기여했다(Alatas 2021). 현 정부의 정통성 위기를 고려할 때 새로운 외교정책 프레임워크의 발표는 국내 정치적 의도를 반영한다. 2019년 마하티르 정부의 외교정책 프레임워크에서 나타난 주요 원칙과 정책을 계승하는 한편 차별성을 부각하고자 하였다. 실용적이고, 독립적이며, 원칙 있는 외교정책을 유지하되 잔인한 탄압, 불의, 비인도적 행위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반대하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규칙 기반 자유 질서를 지지하며 인권을 강조했다라는 것이다. 취약 계층, 여성, 아동 및 기업 활동과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2022~2024년 임기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다.

신정부는 팬데믹과 이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실용적인 외교 방향도 제시했다. PH 정부의 프레임워크와 비교할 때 적극적인 경제외교로 교역과 투자를 촉진하고 안정되고 평화로운 국가로서 말레이시아 이미지를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세계 경제와 연계성 회복, 보건 외교(health diplomacy), 디지털 경제, 사이버 안보, 문화 외교, 평화적 공존, 다자협력,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8개 중점 분야로 선정했다. 의회 내 외교 분과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부처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어, 디지털 경제를 위해서는 경제 계획국, 무역산업부, 커뮤니케이션·멀티미디어부와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Malays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1). 스포츠, 문화를 활용한 외교 강화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국제 스퀘시 대회 개최와 관련 이슬람권에 대한 탄압을 이유로 이스라엘 선수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함에 따라 대회 개최가 무산되는 등 정치적 제약 요인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발표된 말레이시아 외교정책 프레임워크는 정부의 외교력을 부각하고 역 내외 이슈에 더 적극적인 견해 표명을 의도

하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2021년 2월 미얀마 쿠데타 이후 군부의 유혈 진압을 강도 높게 비판해오며 아세안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특히 외교장관 사이푸딘 압둘라(Saifuddin Abdullah)는 미얀마 군부가 5개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of Myanmar)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 관료의 공식적 견해 표명은 아세안 국가 중 최초였다(Malaymail 2021/10/06).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에 군부 참여를 배제하는데 말레이시아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역내 인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정권의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아직 난민협약(1951)을 비준하지 않았으며 2021년 2월에 1,000여 명의 미얀마 난민을 미얀마로 송환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등록된 난민은 약 18만 명으로 추산된다. 팬데믹 상황에서 난민에 대한 지원이 부재했으며 난민의 백신 접종도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Civicus 2021).

새로운 외교정책 프레임워크에 따르면 외교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지역 내 강대국 경쟁과 관련해서는 오랜 외교정책 원칙인 중립성을 유지할 것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한 중국과의 갈등 심화는 말레이시아 외교에 주요 과제로 부상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다차원적 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에서 아세안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비중이 동북아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아세안과 말레이시아가 갖는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중요성과 특정 분야에서의 기능적 협력 필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말레이시아는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와 달리 화이자 백신 비중이 높아 향후 보건 외교 강화에 있어서도 미국과 추가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 거버넌스, 경제 이슈 등은 양국관계에 있어

주요 현안으로 남아있다. 2021년 2월 미국이 생태 환경적 이유로 말레이시아 팜유 수입을 금지한 것에 대해 말레이시아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다. 한편 말레이시아 유력 인터넷 언론 매체 ‘말레이시아끼니’(Malaysiakini)에 벌금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미국 측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우려를 표명했다(Kuik, Ahmad, and Khor 2021).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나집(Najib)의 UMNO 정부는 동해안철도건설 프로젝트(ECRL, East Coast Rail Link)에 중국 투자를 유치하는 한편 중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는 등 중국과 관계를 강화했다. 마하티르가 중국 의존도 심화를 비판하며 2018년 총선 이슈가 되었고 PH 정부는 집권 직후 ECRL의 잠정 중단 선언 후에 중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공사비 인하를 성사시켰다. 그러나 무히딘 정부에서는 다시 공사 구간을 연장하며 사업비가 증액되었다.

투자 대상국의 정세 안정을 원하는 중국의 이해관계와 외교 성과를 원하는 이스마일 사브리 정부의 이해가 만나게 되면 양국관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021년 4월에 히샤무딘 당시 외교장관은 중국을 방문하여 포스트 팬데믹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 각서를 체결했다. 히샤무딘이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중국을 ‘큰형’(elder brother)으로 호칭한 것으로 전해지며 논란이 되었다. 히샤무딘이 왕이 중국 외교장관을 개인적으로 지칭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논란은 한동안 계속되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안보 이슈는 말레이시아와 중국 관계에 중요한 변수이다. 말레이시아는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이지만 역사적으로 분쟁에 직접 연관된 경우는 적었다. 2020년 마하티르 총리가 베트남과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에서의 석유시추선 웨스트 카펠라(West Capella)의 활동을 승인함에 따라 베트남과 중국이 각각 조

사선박을 파견하는 등 긴장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당시 미국이 해당 수역에 군함을 파견하며 말레이시아를 간접적으로 지지했으나, 국제 분쟁으로 갈등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말레이시아 정부는 미국의 군사적 조치와 관계가 없음을 선언하며 거리두기를 선택했다.

2021년 5월 31일 보르네오 인근 말레이시아 배타적 경제수역(EEZ) 상공에 중국 군용기가 출현함에 따라 말레이시아 공군기가 대응 출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말레이시아 외교부는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에 항의했다. 6월 외교부 차관 까마루딘(Kamarudin)이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외교장관을 대신해서 아세안-중국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할 자리에서 중국 군용기 사건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갈등 확산을 원하지 않은 말레이시아는 같은 달 히샤무딘이 중국이 주최한 아시아 태평양 고위급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히샤무딘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NGEOW 2021).

그러나 9월에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며 외교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중국의 조사선과 해양경찰선이 말레이시아 라부안(Labuan) 140km 인근 배타적 경제수역을 침범했다.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주말레이시아 중국 대사를 초치하며 항의했다. 이는 호주, 영국, 미국의 ‘아쿠스’(AUKUS) 체결로 인해 남중국해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복잡한 안보적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었다. 이스마일 사브리 총리는 AUKUS가 남중국해 지역의 군비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했다. 말레이시아 국방장관은 AUKUS 체결 직후 중국 방문을 제안했는데 전통적인 중립성 원칙에 비춰 볼 때 이례적인 대응이었다. 외교부의 강경한 입장과 대비된 국방부의 유화 조치는 안보 현안에 대한 국방부와 외교부 사이의 소통 매커니즘의 부재를 보여준다. 결국 중국의 말레이시아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사건으로 인한 갈등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양국 관계

발전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

12월 초 외교부 장관 사이푸딘은 중국 왕이(Wang Yi) 외교장관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제1차 양국 간 고위 위원회 회의(High Level Committee Meeting)가 개최되었다. 정치적 상호 신뢰, 팬데믹 협력, 경제회복을 위한 일대일로 전개, 세계개발 아젠다, 민간교류 확대, 동아시아협력 등에 의견을 같이했다. 중국은 9월에 말레이시아에 코로나 백신 1백만 회를 기부하기로 한 데 이어서 추가로 2백만 회의 백신 공여를 약속했다. 나아가 백신 생산을 위한 협력도 추진하고 있다(The Straits Times 2021/12/7).

VII. 전망

2018년 정권 교체, 2020년 의회 쿠데타 그리고 권력 장악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이합집산으로 지난 수년간 말레이시아 정가는 격변의 연속이었다. 특히 UMNO의 정치적 부침은 더욱 두드러졌다. 2018년 총선 패배 직후, UMNO의 위상은 61년 패권적 지배정당에서 존폐 위기까지 걱정할 정도로 급락하였다. 2020년 의회 쿠데타 이후 일련의 정치과정에서 UMNO는 킹메이커(kingmaker) 역할을 할 정도로 정치적 위상이 회복되었다. 이후 나집과 자히드로 대변되는 UMNO 기득권 세력이 무히딘 정부의 몰락을 주도하면서 UMNO는 집권연립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다시 복귀하였다. 그리고 말라카 선거의 압승으로 UMNO가 과거 BN 체제에 근접할 정도로 정치적 입지를 회복할 개연성이 있다는 말들이 정가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다.

이스마일 사브리는 총리에 취임하면서 2022년 7월 이전에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공언했다. 코로나 팬데믹이 선거 시기를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되겠지만, 일련의 선거 승리로 정국 주도권을 잡은 신정부

가 약속한 기간 내에 총선을 실시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말라카 선거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집권 연립의 중심이 UMNO로 확실하게 재편되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말라카 선거의 득표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UMNO와 BN에 아주 낙관적인 것도, PH에 아주 절망적인 상황도 아니다. BN이 얻은 득표율은 38.4%로 2018년 총선보다 겨우 1% 미만 상승한 정도였다. UMNO의 득표율도 2018년의 25%에서 5% 정도 상승하였고, UMNO가 승리한 18곳 중에서 8곳은 5% 미만의 근소한 승리였다. 말레이계 유권자로부터는 오히려 2018년에 비해 약 4% 적은 지지를 받았다.

PH 득표율이 2018년보다 51.1%에서 35.8%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이는 Bersatu가 PH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었다. 말라카 선거에서 Bersatu 득표율이 2018년과 비슷한 15% 정도였음을 고려하면, BN, PH, PN의 주요 정당들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는 기존과 의미가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결국 PH의 위기는 Bersatu의 탈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이다. 무히딘의 Bersatu 역시 홀로서기에 성공한 듯 보이지만, 차기 총선에서 집권연합의 중심이 되기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인 상황이다. Bersatu가 나집과 자히드가 주도하는 UMNO와 화학적 통합을 하는 것 또한 실리와 명분이 없는 선택으로 보인다. 결국 차기 총선에 이르는 과정에서 혹은 총선 이후 각 정당의 성과에 따라 권력 장악을 위한 여야 정치권의 이합집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향후 정치과정이 상당히 가변적이지만, 특정 정당 혹은 정당연합이 과거와 같은 패권적 장악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향후 말레이시아 정치가 보다 다원적이고 경쟁적인 과정으로 전개될 개연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포스트 코로나 경제회복 여건도 만만치 않다. 원자재 가격 상승,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 노동력 부족 등은 특히 제조업 회복을 더디게 할 것으로 보인다. 말레이시아 중국계상공인협회의 사업 및 경제

여건 조사(ACCIM M-BECS)에 따르면 응답자의 70% 이상이 2022년 국산 및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을 전망했다. 생산자 가격지수는 2021년 4월~10월 간 13.2% 상승했다. 팬데믹 기간 중 이주노동자 수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이 발생했다. 2018년 2백만 명에 육박했던 이주노동자는 현재 1.1백만 명으로 급격히 감소해서 추가적 노동력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플랜테이션 분야 7만 명, 건설업 20만 명, 제조업 2만 5천 명, 서비스 4만 5천 명 등의 이주노동자 유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생산 요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응답자 50% 이상이 2022년 상반기 중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The Edge Malaysia Weekly 2021/12/27).

OECD는 팬데믹 이후 말레이시아의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적극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분간 팬데믹 위기 극복에 우호적인 금융정책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회안전망 확보,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를 제안했다(OECD 2021).

정통성을 확보하지 못한 이스마일 사브리 정권은 중립성 원칙의 자기 주도 외교가 아닌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미얀마 사태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며 아세안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지만, 국내 정치적 수단이 아니라 사태의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Alatas, Sharifah Munirah. 2021. "A Malaysian Perspective on Foreign Policy and Geopolitics: Rethinking West-Centric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Global Studies Quarterly* 1: 1-11.
- CIVICUS. 2021. "MALAYSIA: 'The government should have assisted refugees under the pandemic'." <https://www.civicus.org/index.php/media-resources/news/interviews/5126-malaysia-a-the-government-should-have-assisted-refugees-under-the-pandemic>.
- Hunter, Marry. 2021. "A New Economic Paradigm for Malaysia's Multiple Challenges." *The Edge Market*. November 7.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my-say-new-economic-paradigm-malaysias-multiple-challenges>.
- Hutchinson E. Francis & Zhang Kevin. 2021. "Perikatan Nasional's Performance in Melaka: Worth a Double Take." *FULCRUM*, November 26.
- Hutchinson, Francis E. 2021. "Malaysia's Latest Political Fisticuffs - Muhyiddin or Zahid on the Ropes?" *FULCRUM*, July 9.
- Hutchinson, Francis E. 2021. "Muhyiddin's Gambit: Royally Bolcked." *FULCRUM*, June 18.
- Khalid Samad. 2021. "Looking at bipartisan MOU and its implications for Harapan." *Malaysiakini*. September 14. <https://www.malaysiakini.com/news/591272>.
- Kow, Gah Ghie. 2021. "Harapan meets reps amid speculation of new govt in Malacca." *Malaysiakini*. October 1. <https://www.malaysiakini.com/news/593645>.

- Kuik, Cheng-Chwee, Ahmad, Abdul Razak, Khor, Swee Kheng. 2021. "Malaysia-US Relations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Mapping Excitement, Managing Expectations." ISEAS Perspective 46. <https://www.iseas.edu.sg/articles-commentaries/iseas-perspective/2021-46-malaysia-us-relations-and-the-biden-administration-mapping-excitement-managing-expectations-by-kuik-cheng-chwee-abdul-razak-ahmad-and-khor-swee-kheng/>
- Lowy Institute. 2021. "Asia Power Index 2021." <https://power.lowyinstitute.org/countries/malaysia>.
- Malaymail. 2021. "Foreign minister: Malaysia prepared to hold dialogue with Myanmar's National Unity Govt." October 6.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1/10/06/foreign-minister-malaysia-prepared-to-hold-dialogue-with-myanmars-national/2011201>.
-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2021. "Malaysia Economic Performance Third Quarter 2021." https://www.dosm.gov.my/v1/index.php?r=column/cthemeByCat&cat=100&bul_id=MVBFWnc2UHJnc2ZBOVRpVzF5NG5xQT09&menu_id=TE5CRUZCblh4ZTZMODZlbnk2aWRRQT09.
- Malaysiakini. 2021. "After Ismail's rise as PM, Anwar says opposition needs to focus on GE15." August 21. <https://www.malaysiakini.com/news/588035>.
- _____. 2021. "Biggest winners and losers in Malacca polls." November 21. <https://www.malaysiakini.com/news/600058>.
- _____. 2021. "Ismail Sabri's govt: Who's in, who's out and what it means." August 27.

<https://www.malaysiakini.com/news/588927>.

_____. 2021. “Muhyiddin: PN support for Ismail conditional, no ministers with criminal charges.” August 19.

<https://www.malaysiakini.com/news/587821>.

_____. 2021. “PM promises GE15 by July 2022, won't allow ‘kleptocrats’ to rule.” August 13.

<https://www.malaysiakini.com/news/587071>.

_____. 2021. “PM to seek confidence vote in September.” August 4. <https://www.malaysiakini.com/news/585808>.

_____. 2021. “PMO defends bypassing Parliament, says PM already advised Agong.” July 29. <https://www.malaysiakini.com/news/585125>.

_____. 2021. “ROS declares Umno elections postponement invalid.” August 6.

<https://www.malaysiakini.com/news/586149>.

_____. 2021. “ROS move aimed at deregistering Umno, destroying grassroots - party young leader.” August 7.

<https://www.malaysiakini.com/news/586263>.

_____. 2021. “Sarawak PKR: Earlier Harapan seat deal now ‘null and void’.” November 26.

<https://www.malaysiakini.com/news/600813>.

_____. 2021. “Shahidan wants Umno elections to be held earlier to resolve leadership crisis.” June 28.

<https://www.malaysiakini.com/news/580744>.

_____. 2021. “Umno reveals letters by MPs who no longer back Muhyidden.” August 9.

<https://www.malaysiakini.com/news/586484>.

- _____. 2021. “UMNO sends a clear signal for ‘clean break’ with Bersatu.” March 29.
<https://www.malaysiakini.com/news/568544>.
- _____. 2021. “Zahid to remain Umno president until Dec 2022 at least.” June 29.
<https://www.malaysiakini.com/news/580993>.
- Malaysi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2021. “Malaysia's Foreign Policy.” <https://www.kln.gov.my/web/guest/foreign-policy>.
- MITI. 2021. “Investment in Malaysia.” <https://www.miti.gov.my/index.php/pages/view/4916?mid=611>.
- New Straits Times. 2021. “Political stability, uncertain policies driving investors away: FSMOne Malaysia.” August 4. <https://www.nst.com.my/business/2021/08/714797/political-stability-uncertain-policies-driving-investors-away-fsmone>.
- _____. 2021.. “Malaysia's national debt to GDP ratio at 62.1 per cent.” October 28. <https://www.nst.com.my/news/nation/2021/10/740468/malaysias-national-debt-gdp-ratio-621-cent>.
- Ng, Xiang Yi. 2021. “Harapan to hold meeting amid dissent over Idris quartet.” Malaysiakini. October 20.
<https://www.malaysiakini.com/news/596049>.
- Ngeow, Chow Bing. 2021. “Have Friendly Malaysia-China Relations Gone Awry?” <https://carnegieendowment.org/2021/07/16/have-friendly-malaysia-china-relations-gone-awry-pub-84981>.
- Norshahril Saat. 2021. “The UMNO General Assembly and the Rocky Road Back to Putrajaya.” FULCRUM, May 12.
- Norshahril Saat. 2021. “UMNO united while Bersatu prevaricates.” FULCRUM, March 31.

- OECD. 2021. "OECD Economic Surveys: Malaysia."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cc9499dd-en.pdf?expires=1642299012&id=id&accname=ocid53014349&checksum=95B2B73DE4957DA40518CFC5B3E9DE0B>.
- Ong, Andrew. 2021. "Key takeaways from Sarawak elections." December 19. <https://www.malaysiakini.com/news/603689>.
- Raveena Nagotra. 2021. "Muhyiddin undeterred by Malacca defeat, to remain firm with Bersatu." November 21. <https://www.malaysiakini.com/news/600050>.
- The Edge Market. 2021. "EPF: Members need to work 4-6 years more to rebuild savings used during pandemic." October 31.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epf-members-need-work-46-years-more-rebuild-savings-used-during-pandemic-73-now-lack-funds>.
- _____. 2021. "Budget 2022: A Feel-good Budget for the Malaysian Family." November 1.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budget-2022-feelgood-budget-malaysian-family>.
- _____. 2021. "Economist: Budget 2022 Finds Balance in Managing the Country's Economy." November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economist-budget-2022-finds-balance-managing-countrys-economy>.
- _____. 2021. "Revenue collection recorded an increase of 8.9% to RM210.4 bil up till November, says PM." December 13. <https://www.theedgemarkets.com/article/revenue-collection-recorded-increase-89-rm2104-bil-till-november-says-pm>.
- The Malaysian Reserve. 2022. "Underemployment remains a concern

amid lowest unemployment rate.” January 11. https://themalaysianreserve.com/2022/01/11/underemployment-remains-a-concern-amid-lowest-unemployment-rate/?__cf_chl_jschl_tk__=M7klVr2a1r7VVmeheJxs7.F0poKwUxrV3txdfiTxr5s-1642296957-0-gaNycGzNB5E.

The Star. 2021. “Austria's AT&S picks Malaysia as tech hub.” June 11. <https://www.thestar.com.my/business/business-news/2021/06/11/austrias-ats-picks-malaysia-as-tech-hub>.

_____. 2021. “Inflationary pressure to prolong into 2022.” December 27. <https://www.thestar.com.my/business/business-news/2021/12/27/inflationary-pressure-to-prolong-into-2022>.

The Straits Times. 2021. “Taking Malaysia-China relations to new heights during Covid-19: Sin Chew Daily.” December 07. <https://www.straitstimes.com/asia/taking-malaysia-china-relations-to-new-heights-during-covid-19-sin-chew-daily>.

Tong, Geraldine. 2021. “Anwar on new deal with govt: It’s an MOU, not a CSA.” Malaysiakini. September 14. <https://www.malaysiakini.com/news/591356>.

Welsh, Bridget. 2021. “Malacca polls: Preliminary look at the results.” November 21. <https://www.malaysiakini.com/columns/600120>.

UNCTAD. 2021. “A New Centre of Gravity: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nd its Trade Effects.” https://unctad.org/system/files/official-document/ditcinf2021d5_en_0.pdf.

(2022.01.17. 투고, 2022.01.29. 심사, 2022.02.17. 게재확정)

<Abstract>

Malaysia in 2021: The Fall of Muhyiddin Government and the Deepening Crisis in Pakatan Harapan

KIM Hyung Jong
(Yonsei University Mirae Campus)

HWANG In W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fall of Muhyiddin government followed by the appointment of Ismail Sabri Yaakob as Prime Minister has intensified the political upheaval in Malaysia. There have been growing concerns on the possibility of returning to the pre-2018 political landscape after the Barisan Nasional's landslide victory in the Malacca state election and the Pakatan Harapan's defeat in the Sarawak legislative assembly election in 2021. The recent political development in Malaysia raised the following questions: How has the 'political survival game' of Muhyiddin's coalition failed?; What roles have been played by the King (Agong) with a political impasse?; What are the implications of the results of the two elections in Malacca and Sarawak during the COVID-19 pandemic? What are the visions and limitations of new initiatives by the Ismail Sabri administration for sustainable economic growth and active diplomacy? This article charts the challenges and direction of the 15th general election

by analyzing the process of government change in August and the results of the Malacca and Sarawak state elections. It argues that the political mismanagement has worsened the pandemic situation and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 of low-income people while the lack of political legitimacy would pose a challenge in practicing neutrality in its foreign affairs.

Key Words: Ismail Sabri Yaakob, Barisan Nasional, Pakatan Harapan, Perikatan Nasional, Pandemic, Malacca State Election 2021, Sarawak State Election 2021, COVID-19 Pandemic

